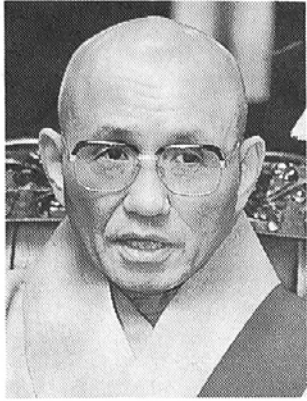


월 주 스 님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1주년 기념...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1주년 기념...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1주년 기념...

개척실현 터다지기 '자부' '사회참여 주력...방송국 3-5개 더 추진'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 역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등 3인 체제로 역할 분담... "인 독점운영 체제에서 총무원 총회 회계원등 3 회분립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 역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등 3인 체제로 역할 분담..."

"미래 불교중흥의 동량 육성"

일년 장학회 설립 양준윤 보살

"그동안 미려한 힘이나마 불교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불사와 대중포교에 힘써 왔습니다. 이제 창립 24주년을 맞아 회원들의 불심을 바탕으로 미래의 동량이 될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고 향구적인 장학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한국불교의 선구적 역군이 될 수 있는 신심이 돈독한 젊은 불자들을 육성하기 위해 고등학생(10명)에게는 1인당 연간 30만원, 대학생(7명)에게는 1인당 연간 1백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불자장애인 학생과 불교장애인 단체에서 활약중인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연간 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신심깊은 청년불자들이 의욕 하나만으로 불교중흥을 위해 뛰어나기에는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뜻있는 불자들의 동참을 부탁하기도 했다. '일년장학회'는 지난 7년 경봉스님의 원력에 힘입어 11명의 발기인으로 창립된 이래 사찰에 팔만대장경 기증, 중앙승가대에 매년 1천만원씩의 장학금을 5년간 지급해 왔다.



부산=박병근 기자

교차로

동국학원 이사장에 재선임, 녹원스님 (동국학원 이사장)은 지난날 24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동국학원 제 135차 이사회에서 제18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스님은 지난 1일 오전 11시 동국대 정각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직무에 들어갔다. 자원봉사 국무총리상 수상, 정진스님(불교간병인협회 회장)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한국자원봉사사단체협의회에서 주는 자원봉계획을 밝히며 내년엔 '정부에 3~5개의 불교방송국을 더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인권위 계층제에 성금,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은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재야운동가 계층제에 임원중인 서울대 병원을 방문, 2차 모금액 9백81만원을 전달했다.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현판식, 종실스님(청교련대전지부장)은 지난달 26일 대전지부 사무국 이전(연화사내)식 및 대전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한일과거청산본부' 상의의장, 김명윤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는 지난달 29일 한일과거청산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상의의장에 선임됐다. 김의장은 지난 7월 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공동의장으로 참여해 왔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협약, 송석구총장(동국대)은 마이크로소프트사(대표이사 류승삼)와 지난달 29일 총장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대학교육기관 협약을 가졌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를 기증받게 됐다. 기업문화 주제 특강, 김중규관장(삼성출판박물관 삼성출판사 회장)은 12월4일 오후6시 배재대 정책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기업문화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금강경 독송안내서 펴내, 박동만교장(동대부중)은 지난달 10일 금강경 독송의 안내서 '금강경 독송과 밝은 생활의 길'을 펴냈다. 인사,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1일자로 문화예술대학원장에 홍윤식교수(역사교육과·박물관장), 연구교류처장에 임기종교수(국문학과)를 각각 인사발령했다.

푸른제복 전범 25년 '보람의 회향'

군포교사상 첫 만기전역 임봉준 법사, 군법사 2기로 군포교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외길을 달려온지 25년. 지난달 30일 전역과 함께 일선에서 물러나는 임봉준법사(대령, 군중실장)를 용산 호국 원광사에서 만나 군포교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들었다. -군법사로는 첫 만기전역을 하겠는데요. 4반세기를 회색 가사와 푸른제복을 번갈아가며 오직 군포교에 헌신해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 ▲한마디로 원없이 열정적으로 군포교를 했습니다. 부처님 전 법사됨을 닮고 나니 다소나마 불문에 대신한듯 하여 흐뭇합니다. -군법사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대는 남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조직입니다. 특히 여성불자가 많은 불교의 경우 남성불자를 확보하는데는 군대만큼 좋은 마당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3년간의 군생활동안 확고한 신심을 심어주었을 때 불교의 인식이 달라지고 사회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범 종단차원의 대대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법사님은 7, 8, 9, 11대등 네차례에 걸쳐 군중단장을 역임하면서 군중의 제도적 보완과 군중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군중을 80명으로 늘리는 등 혁명적인 공로를 세웠습니다. 특히 군중특별교구설치등 군중위상 정립에 남다른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아직도 군법사는 비승비속의 위치에 있는듯 합니다. ▲군포교 초창기의 어려움은 말로써 표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선 군법사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것을 인식하는데 많은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포교현장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법사가 부족해 군단급에 법사가 한명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군대라는 조직사회에서 기존의 군목사와 신부들의 비협조속에서 천막을 빌리거나 여름에는 나무 밑에서 법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식당을 빌렸고 막사를 법당으로 개조해서 이용하다가 80년대 이르러 대대적인 군법당설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전국에 2백90여개의 법당이 있으나 교회 7백여개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흔히들 군대는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랜기간 군법사로 활동하면서 느낀 군포교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군대는 곧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법사는 결론할 수 있으니 승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84년 종헌개정법을 통해 군법사의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군포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종헌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양성화해야 합니다. -법사님은 청정비구로 군포교를 펼쳐와 많은 이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은사 경산스님이 청정비구의 기수로 정화를 이끌었고 군중제도를 이룩했던 것처럼 청정비구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정신만이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대에 부처님법을 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승려에게 수행이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전역도 했으니 선방을 찾아 수행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목탁소리없는 부대 수두룩...선방 수행에 여생'

다. ▲군포교 초창기의 어려움은 말로써 표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선 군법사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것을 인식하는데 많은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포교현장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법사가 부족해 군단급에 법사가 한명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군대라는 조직사회에서 기존의 군목사와 신부들의 비협조속에서 천막을 빌리거나 여름에는 나무 밑에서 법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식당을 빌렸고 막사를 법당으로 개조해서 이용하다가 80년대 이르러 대대적인 군법당설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전국에 2백90여개의 법당이 있으나 교회 7백여개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흔히들 군대는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랜기간 군법사로 활동하면서 느낀 군포교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군대는 곧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법사는 결론할 수 있으니 승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84년 종헌개정법을 통해 군법사의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군포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종헌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양성화해야 합니다. -법사님은 청정비구로 군포교를 펼쳐와 많은 이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은사 경산스님이 청정비구의 기수로 정화를 이끌었고 군중제도를 이룩했던 것처럼 청정비구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정신만이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대에 부처님법을 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승려에게 수행이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전역도 했으니 선방을 찾아 수행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구화산 인덕장장 월주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달 25일 중구 구화산 인덕장장님 일행의 예방을 받았다. 월주스님은 "한국의 고승이 중국에서 존경받고 있는 것은 매우 자랑스런 일"이라고 했다. 인덕스님은 "월주스님을 꼭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덕스님은 이어 27일 이의근 경북도지사를 방문 경주에 김교각스님상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고 지난 1일 출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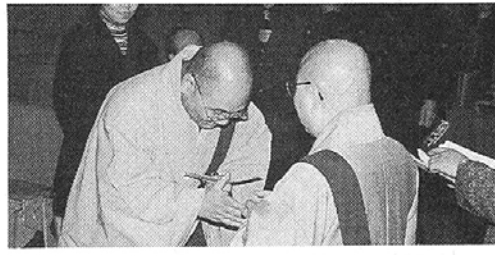
불광사 기아기구에 자비의 증 전달

불광사(주지 법일)는 28일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에 자비의 증 40여개를 전달했다. 불광사는 지난 여름부터 신도들에게 저금통을 나누어주고 이날 1차 성금을 전달했다. 한편 불교기아도움기구는 사찰, 학교, 서울은행 전국 지점망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이 성금은 국내 결식아동 및 르완다 난민 구호 기금으로 사용된다.



건봉사서 만불명호경 사경집 소지공양

서울 구룡사(주지 정우)는 24일 강원도 건봉사에서 만불명호경 사경집 소지공양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지난 8월 15일부터 구룡사 법당에서 1백일동안 만불의 명호를 사경한 1천여명의 불자가 동참했다. 각 10권씩 사경한 사경집을 모두 소지공양한 불자들에게 정우스님은 "기도했다는 마음이 실리버려 허공에 불·보살에게 공양하자"고 당부했다.



불교복지단체 동절기 보조금 전달식

불교사회복지사업단체에 대한 동절기 생계 보조금 전달식이 지난달 30일 교계 최초로 거행됐다.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공동주최로 거행된 전달식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어린이집, 독서실, 부랑인 시설 및 단체 84곳에 모두 1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보조금은 지난 11월초 익명의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이다.



■ 일 시: 2539년 12월 30일(오후 4시) ~ 2540년 1월 1일(오후 1시)
■ 장 소: 속리산 유스타운(법주사 입구)
■ 준비물: 동참금 4만원, 필기구, 세면도구
강의준비물-가위, 칼, 30cm자, 풀, 스키치테이프, 색종이 2류용, 소핑백(큰 것), 우유팩 8개, 음료수캔 1개, 빨대 굵은 것, 하드보드지(10x5cm) 10장, 부직포(30x60cm) 1장
* 강의 준비물은 필히 지참(본부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TEL (051) 808-4569, 4570 FAX (051) 808-4571
■ 지급품: 1만원 상당의 어린이 법회교재, 연수교재
군중병은 사단법인불국토에서 동참금 50%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깨어있는 교육 환경 세계로 달리는 어린이" ML K L I

제20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반갑습니다. 부처님 나라를 위해 힘찬 정진과 하고 계시는 지도자여러분!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순수하게 어린이 포교에만 앞장서온 본회가 제20차 전국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라는 자리를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이번 연수회는 20번째라는 큰 의미 속에서 지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정리해 보고 미처 갖추지 못했던 포교사로서 수행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따른 어린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를 바르게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동참하시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어린이를 교육하는 깨어있는 지도자의 자세를 가슴에 새겨 가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 조정관 합장 회장 석철오 합장

Table with 4 columns: 내용 (Content), 감사 (Thanks), 비고 (Remarks). Rows include topics like '2540 청소년 포교의 해 -포교활성화 방안', '부처님 진리, 어떻게 믿고 실천할 것인가 -재가자의 기초 수행방법', '불교의 신앙체계와 신생활', '변화하는 교육 -어린이 법회가 나아갈 방향', '5·31 교육개혁 이후 -국민학교 교육정책과 방향', '알고 넘어 갑시다 -어린이 교육 타종교는 이렇게 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실내용이', '불성 개발을 위한 창의적 직업활동', '연극과 마당놀이 실제', '찬불가와 함께'.